

진화론 '생명일원주의' VS 불교 '생명평등주의' 일치

다윈 탄생 200주년 대한불교진흥원 · 미디어붐다 '다윈과 불교의 만남' 학술행사

200년 전 다윈의 진화론은 서구에 일대 세례를 불러일으켰다. 기독교의 창조론을 뒤집은 다윈의 학설은 2500여 년 전 브라만·사문과 달리 독자적인 연기론을 설파했던 붓다와도 닮아 보인다. 차이라면 진화론으로 대변되는 과학과 종교인 창조론이 여전히 갈등과 소통을 거듭하고 있지만, 불교와 과학의 소통은 활발하다는 점이랄까?

연기론은 불교의 존재론·발생론 등 불교의 가장 중요한 교의이다. 물리학의 양자역학은 화합의 '일미진 증합시방(一微塵中舍十方)' 등을 통해 불교의 존재론과 비교된다. 발생론으로서의 연기론인 12연기는 진화론과 비교되며 불교의 생태적 사고, 생물학적 사고의 근원을 설명해 왔다.

이런 가운데 다윈 탄생 200주년, <종의 기원> 출간 150주년을 맞아 연기론과 진화론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과 인터넷 불교인론 미디어붐다(대표 이희중)는 11월 27일 마포 다보빌딩에서 '다윈과 불교의 만남'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는 △이한구 성곡관대 교수가 '진화론의 철학'을, △홍성욱 서울대 교수가 '진화론과 기독교, 그리고 그 관계가 불교에 말하는 것'을,

△안성두 서울대 교수가 '진화론의 불교적 함의'를,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가 '불교와 다윈니즘-그 흥미로운 수렴'을 각각 주제발표했다. 토론 자료는 김성철 동국대 교수와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참석했다.

이한구 교수는 주제발표 '진화론의 철학'에서 존재론과 인식론, 윤리학의 영역에서 진화론을 조명했다.

이 교수는 "진화론의 '생명일원주의(生命一元主義)'가 불교의 생명평등주의와 일치한다"면서 "계속 이어지는 진화론적 인식이론은 보다 높은 진리를 향해 그 관점이 상승하는 불교의 진속이제설과 유사하다. 또, 불살생계와 자비로 대표되는 불교의 불교윤리는 진화론적 이성윤리를 포섭하는 생명윤리의 최고봉"이라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진화론은 반본질주의(anti-essentialism), 비 결정론(indeterminism), 무 목적론(teleology)을 기본 특성으로 해 불교와 상당히 유사한 논리체계를 갖고 있는 이론"이라 말했다.

홍성욱 교수는 지난 200여 년간 끊임없이 반복해온 서구에서의 진화론과 기독교의 관계 고찰과 진화론과 불교의 유사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소개했다.

홍 교수는 "흔히 불교는 과학적 종교로 알려져 있다. 불교에서는 창조

의 권능과 과학 사이에서 벗어 나는 마찰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불교에서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윤리학과 윤리철학은 종의 경계와 시간을 두고 변하고 모든 종들을 '생명이 나무'로 연결된 존재로 보는 진화론과의 형식적인 유사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여 홍성욱 교수는 "서구에서는 불전과 19세기 제창된 다윈의 진화론 사이의 개념이나 텍스트 문맥상의 유사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돼 왔다"면서 "최근에는 폴 에크만이 다윈의 작업을 연구하다가 그의 견해가 티베트 불교와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달라이 라마는 "진화론과 불교의 생명론이 비슷하지만,



11월 27일 마포 다보빌딩에서 열린 '다윈과 다윈의 만남'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이 종합토론하는 모습.

안성두 교수는 "창조론을 주장하는 기독교와는 달리 진화론과 불교는 기본적으로 양립 가능하다"며 "진화"라는 개념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불교의 무상관과 상통하고, 모든 것을 끊임없는 흐름 속에서 관찰하는 불교의 핵심적인 정신적 태도와 상통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교수는 "불교의 교설과 다윈주의의 유사성은 엄청나게 많이 끌어낼 수 있지만, 그런 유사성은 모두 표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특히 불교 무아론의 반물질론적 본질은 사후 자아 존속의 문제에 이르러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여 최 교수는 "과학과 종교가 하나로 융합할 수는 없어도 충분히 통섭(統攝)할 수는 있다"면서 "유전자학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생명은 언뜻 섬뜩하고 허무해 보이지만 그를 통해 스스로가 철저하게 겸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자연의 일부로 거듭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기본 교설이 말하는 '무상함(anicca)'과 무아의 '공(空)'의 개념에 도달하는 길일 것"이라 강조했다.

이여 최 교수는 "과학과 종교가 하나로 융합할 수는 없어도 충분히 통섭(統攝)할 수는 있다"면서 "유전자학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생명은 언뜻 섬뜩하고 허무해 보이지만 그를 통해 스스로가 철저하게 겸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자연의 일부로 거듭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기본 교설이 말하는 '무상함(anicca)'과 무아의 '공(空)'의 개념에 도달하는 길일 것"이라 강조했다.

김광식 부천대 교수는 주제발표 '백초월의 항일운동과 진관사'에서 "백초월 스님에 대한 연구논문을 작성하면서 풀리지 않던 부분이 이번 자료 발굴로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만해와 위상이 같은 백초월 스님의 독립운동과 진관사의 연관성, 한국독립운동사에서 백초월 스님의 위상 등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관사는 지난 8월, 5월 26일 경내 칠성각 건물 보수 중 불단과 기둥 사이에서 발견한 1919년 6-12월 자 항일 신문과 태극기 1점 등 17점의 독립운동자료를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적 본성을 극복하는 방법이나 그 가능성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갖는 점이 불교와 차별된다"고 강조했다.

안성두 교수는 "창조론을 주장하는 기독교와는 달리 진화론과 불교는 기본적으로 양립 가능하다"며 "진화"라는 개념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불교의 무상관과 상통하고, 모든 것을 끊임없는 흐름 속에서 관찰하는 불교의 핵심적인 정신적 태도와 상통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교수는 "불교의 교설과 다윈주의의 유사성은 엄청나게 많이 끌어낼 수 있지만, 그런 유사성은 모두 표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특히 불교 무아론의 반물질론적 본질은 사후 자아 존속의 문제에 이르러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여 최 교수는 "과학과 종교가 하나로 융합할 수는 없어도 충분히 통섭(統攝)할 수는 있다"면서 "유전자학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생명은 언뜻 섬뜩하고 허무해 보이지만 그를 통해 스스로가 철저하게 겸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자연의 일부로 거듭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기본 교설이 말하는 '무상함(anicca)'과 무아의 '공(空)'의 개념에 도달하는 길일 것"이라 강조했다.

학술 문화재 소식

현호 스님 '효봉 스님 구상도' 강연

보조사상연구원 이사장 현호 스님은 11월 21일 서울 법련사에서 열린 보조사상연구원 제21차 국내학술대회에서 '효봉 스님 구상도'를 주제로 기조강연했다.

보조사상연구원 법산 스님이 대독한 강연문에서 현호 스님은 "송광사 효봉영각의 아홉면에는 효봉 스님의 일대기가 △신동출현 △인생무상 △구법행각 △승가득도 △정진으로 △정해쌍수 △대진 선종 △종단정화 △적광보조의 아홉 면의 벽화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원호 대사 스토리뱅크 기획·제작' 세미나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장 보광 스님은 11월 25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제11회 학술세미나에서, '원호대사 다장르 스토리뱅크의 기획과 제작'을 주제발표했다.

이재수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과 공동발표한 발표에서 스님은 "평등 소통 화해 통일의 면모를 갖춘 원호의 생애를 인물·사건·무대·아이템의 시놉시스 구조로 분석·조합하면 무한한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선학회 '조선 후기 선사상' 학술대회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김호규 연구교수는 11월 27일 동국대 다항관에서 '조선 후기 선사상'을 주제로 열린 한국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수선결사문>의 구성과 화선작법'을 발표했다.

김 연구교수는 "<수선결사문>은 내용상으로는 12가지로 분류된다"면서 △선지식 △발심해야 함 △선정과 방편 △공안 △성성적 △일상화 △반야정도 △선악의 분별 △분분사 △신심 △불퇴전 △사교입선으로 <수선결사문>을 설명했다.

이병욱 교수 '간화선, 여타 수행법 포용해야'

이병욱 고려대 외래교수는 계간 <불교평론>(편집인 홍사상) 제41집(2009년 겨울호)에 게재된 '간화선 세계화 · 대중화를 위한 제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외래교수는 "보조조사 지눌을 비롯해 고려말의 3대 선사인 나옹해근·백운경한·태고보우 스님, 조선시대 청허휴정 스님 등은 간화선 하나만을 수행법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병욱 외래교수는 "지눌 스님 등에서 이어진 수행 풍토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 간화선을 의미하는 '경집문'과 교화를 뜻하는 '원돈문', 염불과 주력을 포함한 '염불문'의 3문 수행이 체계화됐다"면서 "간화선의 골격은 유지하되 선지식의 기풍과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 동사설을 도입하는 등 여러 수행체계가 차례적으로 지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평론> 제41집에는 창간 10년 기획 '불교학 연구 최근 10년의 성과와 과제' 등이 게재됐다. (02) 739-5781

'현공 윤주일 선생의 불교사상' 학술대회

전남대 호남불교연구소 소장 이종표는 12월 18일 오후 3시 전남대 인문대 소강당에서 '현공 윤주일 선생의 삶과 불교사상'을 주제로 현공 윤주일 선생 열반 40주기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062)530-3235

티벳장경연구소 개원

東大 경주캠퍼스... 초대 소장에 김성철 교수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티벳장경연구소가 설립된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손동진)는 12월 9일 오후 2시 캠퍼스내 동국대 100주년 기념관 2층에서 티벳장경연구소(The Research Center for Tibetan Buddhist Canon) 개원식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초대 소장에는 종관학 전공자로 동국대와 티베트 불교간의 교류에 힘써 온 김성철 교수가 임명됐다.

특히, 티벳장경연구소 설립에는 티베트 망명정부 수장인 달라이 라마가 20만 달러를 보내는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관계자는 "동국대가 한국 불교의 중추종단인 조계종 종립대학이라는 점, 티베트인들이 인도로 망명할 때 갖고 나온 <티벳대장경> 한 짚을 1962년 동국대에 기증한 인연이 있다는 점, 또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티베트불교와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금을 보내 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성철 교수는 "<우리말 티벳대장경> 및 <티벳총서> 출간을 비롯해 학술행사 및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티베트 불교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진관사, 임시정부 연통제 불교계 본부

'한국 독립운동과 진관사' 학술세미나

서울 진관사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실시한 연통제의 불교계 중앙본부였던 사실이 밝혀졌다.

진관사주지 계희는 12월 3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독립운동과 진관사'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지난 5월 진관사 칠성각에서 발견된 독립운동 사료의 학술적 가치와 백초월 스님의 항일 운동을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신용하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기조강연 '진관사에서 발굴된 자료의

독립운동사에서의 가치'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또, 신 석좌교수는 "지난 5월 진관사 칠성각에서 발견된 자료를 바탕으로 독립운동사에서 백초월 스님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관련한 과제를 순차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도 기조강연 '진관사 독립운동 자료의 발굴 경위와 그 문화재적 의의'를 통해 "진관사에서 발견된 태극기 등 17점의 독립운동자료를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식 부천대 교수는 주제발표 '백초월의 항일운동과 진관사'에서 "백초월 스님에 대한 연구논문을 작성하면서 풀리지 않던 부분이 이번 자료 발굴로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만해와 위상이 같은 백초월 스님의 독립운동과 진관사의 연관성, 한국독립운동사에서 백초월 스님의 위상 등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관사는 지난 8월, 5월 26일 경내 칠성각 건물 보수 중 불단과 기둥 사이에서 발견한 1919년 6-12월 자 항일 신문과 태극기 1점 등 17점의 독립운동자료를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하스님 지음 135쪽 | 5,000원

선방 일기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중심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납니다. 부조리한 백발만년의 인간이 조화될 열반에 이르는 길이 바로 불교이기 때문입니다.

한형조 지음 333쪽 | 8,000원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만법귀일(萬法歸一) 선(禪)에서의 모든 물음은 하나로 귀결된다. "너는 대체 누구냐?"

김산대사지음 · 대성스님 옮김 247쪽 | 8,000원

간산자전

마음은 본래 맑은 못과 같으나, 눈앞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성품을 혼탁하게 하여 온갖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고된에 빠지며 번뇌를 낳는다. 그 근본 원인은 집착에 있다.

www.HyunbulShop.com

기존의 「여시아문, 이 「현불상」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불교상품에서 일반용품, 불교도서, 음반, 각종 이벤트 등 「온라인쇼핑몰 현불상」을 인터넷에서 만나보세요.

현대불교 현불상 |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창종 2주년 대법회

모시는 말씀

삼보에 귀의 하옵고

존경하는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종도 및 사부대중 여러분 광대무변한 불법 광명과 제불보살님의 대자비심으로 불은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종단은 창종과 더불어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말씀에 따라 생활속에서 불법을 널리 흥포하며 불국정토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창종 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정예하 큰스님 부총정큰스님 장로원장님 각 부원장큰스님 여러 대덕큰스님들을 모시고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창종 2주년 법회를 봉행코져 하오니 사중(寺中)에 바쁘신 일이 있으시더라도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기 2553년 11월 24일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총무원장 혜상 합장

- 일시 : 불기 2553년 (서기 2009년) 12월 12일 토요일(음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 장소 : 화엄조계종 총무원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의 : 총무원 054)632-2799 / 핸드폰 011-228-7813

▷ 입종안내 ◁

맑고 투명한 종단 대한불교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흥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종도들을 모집합니다.